



# UMPC, 새로운 모바일 세상 열까?

‘기대반 우려반’ 일단 출항 ... 높은 가격·배터리 사용시간 ‘해결과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컨셉으로만 발표했던 울트라모바일PC(UMPC)가 실제로 등장하자 세상은 이 기기에 더욱 많은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새로운 생활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란 찬사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 휴대폰과 PC와 다른 이 기기 일부에선 경외심마저 보였다. 차세대 모바일 시장은 PMP와 UMPC가 이끌 것이란 기대도 그 경외심에 내재돼 있다. UMPC가 그토록 대단한 것일까? 휴대폰이 차지하고 있던 모바일 세상을 이 기기가 대체하는 그 날이 과연 올 것인가?

글 | 김종율 기자(people@cellular.co.kr)



UMPC는 휴대폰이나 PDA보다 파워풀하다. 음악이나 게임 및 비디오 재생 외 기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전자 메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인스탯(In-Stat)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지지하는 UMPC가 2011년 최고 780만대 출시될 가능성을 점쳤다.

이 리서치사는 인텔 진영이 밀고 있다는 것, 컴퓨팅 기능에서 휴대폰의 한계를 극복했으며 휴대성에서 PC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개념을 창출했다는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이 새로운 개념의 단말기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측은 삼성 전자 및 중국 OEM업체인 파운더리의 컨셉PC 기반으로 스펙도 일정정도 제시한 상태다. 1세대 UMPC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측은 배터리 구동 시간이 2.5시간이며, 30G~60G바이트 HDD, 인텔 셀러론M 또는 VIA 테크놀로지의 C7-M 프로세서를 탑재했다고 밝혔다. 가격은 599~999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삼성·대우 즉각 시장 대응

삼성전자는 UMPC 컨셉이 발표된 직후 최근 신제품을 내놓았다. 국내 최초이다.

Q1은 '윈도XP 태블릿PC 에디션' 과 인텔의 초전력 절약 CPU를 탑재했으며, 블루투스와 유/무선랜 기능을 지원한다. 7인치 와이드 액정은 터치 스크린방식이다. AVS 기능에 의해 윈도를 구동하지 않더라도 음악이나 비디오 같은 멀티미디어를 재생한다.

이 회사 최초 UMPC로 불리는 'Q1'은 지난 5월 미국시장에 상륙했다. 소매가격은 1099달러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 업체로는 대우루컴즈가 조만간 시장에 동참한다. 이 회사의 슬로 'M1' UMPC는 당초 6월 중순 출시 예정이었지만, 6월 말 현재 출시되지 않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스펙이 정해지지 않아 정식 출시는 좀 더 기다려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배터리 포함 무게 779g이다. 7인치의 와이드 LCD 터치 스크린 및 30~60GB 하드드라이브를 탑재했다. 또한 900MHz 초 저전력 인텔 CPU를 선택해 전력 소모량을 줄였으며, 130만 화소 CMOS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OS로는 물론 윈도XP 태블릿 에디션을 탑재했다. 각종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블루투스와 와이브로 및 DMB도 지원할 예정이다. 예상 가격은 1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국내 UMPC 시장에 진출한 또 하나 업체가 있다면 소니 코리아이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인텔 모바일 CPU와 MS 윈도 U 탑재 제품(VGN-UX17L) 바이오(VAIO) UX시리즈를 발

표했다.

4.5인치 SVGA LCD(1024×600)에 무게 517g. 대부분의 UMPC가 7인치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것과 달리 4.5인치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PMP에 즐겨 채용되는 디스플레이 크기다.

### 해외서도 출시 '붐'

해외 '울트라 모바일 PC'는 지난 4월 일본에서도 발표됐다. 태블릿PC 제조업체인 PBJ의 '스마트카디(SmartCaddie)'를 발표했으며, 판매가격은 9만 9800엔(약 99만원) 정도.

이 제품은 40GB HDD 및 터치 패널이 부착된 액정 디스플레이를 구비했으며, 크기 228×146×25.1mm, 무게860g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특히 교육 시장을 중시. 펜 조작이나 휴대성을 살려 초등학교 등의 수요를 기대했다.

PBJ에 이어 최근 도시바 및 레노버도 울트라모바일PC를 발표했다.

레노버와 도시바는 각각 12.1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내장 광학 드라이브를 자사 UMPC에 탑재했다. 무게는 양사 제품 모두 1.8kg이다. 소니의 소형 LCD와 반대로 대형 LCD를 채용한 것이 특징이다.

도시바 신제품 'Tecra M6'는 비즈니스 사용자부터 학생까지 포괄적인 대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니측은 "가격 및 휴대성을 강화했다"며 "특히 가격을 내리면서도 광학 드라이브를 내장한 것은 주목할 점이다"고 강조했다.

도시바의 'Tecra M6'는 무게 1.86kg이고, 12.1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 인텔의 듀얼코어 프로세서, 멀티 포맷의 DVD 지원 드라이브를 탑재한다. 가격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셀러론M 프로세서와 CD-RW/DVD-ROM 드라이브 탑재 제품이 1059달러 정도이다.

레노버의 'Lenovo 3000 V100'은 주로 소규모 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중량은 1.81kg 정도이고, 가격은 1099달러이다. 고급 지향 모델은 1650달러 전후 가격으로 인텔의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채용했으며, 12.1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 광학 드라이브를 탑재한다.

이들에 이어 아수스도 3분기에 UMPC 'Asus R2H' 를 발표할 예정이다.

### 시장성장 '아직' 불투명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의 야심과 달리 UMPC 시장을 아주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곳도 있다. 가트너가 대표적이다. 가트너는 UMPC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제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휴대폰의 장점과 노트북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과 노트북의 단점만 흡수한 게 UMPC라 평가하고 있다. 즉, 휴대성은 휴대폰보다 떨어지고, 기능은 노트북보다 뒤진다는 것.

가격이 대중적으로 전파되기에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1세대로 발표된 제품들 대부분이 1000달러 수준이다. 다소 비싼 편이다. 물론 1세대 제품이어서 비싸다고 치부할 수 있지만 개인이나 기업들이 별 고민없이 도입하기엔 부담스럽다. 휴대폰·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중간 개념이라면 가격 또한 그 수준이어야 한다.

휴대폰 및 스마트폰 가격이 평균 200~300달러 수준이고, 노트북이 1000달러 수준이라면 UMPC는 500달러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소 고사양은 700달러 정도 하더라도 저사양은 400달러 이하로 가격을 낮추어야 경쟁력을 가진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최근 노트북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면 UMPC의 가격은 더욱 떨어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역시 UMPC가 단기간에 성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다. 그들도 "시간을 들여 꾸준히

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을 만큼, UMPC의 활성화에는 많은 공이 들어가야 한다. 초기 시장은 불투명할지라도 마이크로소프트측은 "UMPC가 유비쿼터스 시대 필수 기기가 될 것"이란 말로 차기 시장을 확신하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같이 확신을 할 수 있는 건 UMPC 컨셉에 많은 이들이 지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사실 UMPC 컨셉은 괜찮다. 가장 UMPC에 비판적인 가트너마저도 이 컨셉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과 노트북의 중간 컨셉을 표명하고 나선 기기는 UMPC만이 아니다. PDA가 대표적이고, PMP도 어쩌면 같은 맥락이다. 이들 기기는 그러나 한결같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 PDA는 이미 퇴출 분위기이고, PMP 역시 한국 시장에서만 반짝하는 분위기이다.

유럽에 적을 둔 디비컴의 신상호 한국 지사장은 "유럽에선 PMP 시장 도래 분위기가 전혀 일지 않고 있다"며 "최소 3년 혹은 5년이 더 지나야 PMP가 시장에서 회자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긴 한국에서도 시장이 고작 20만대 수준이니 '활황'이라 말할 수도 없다.

UMPC의 시장 진입에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배터리 구동 시간이 거론되기도 한다. 차후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지만 1세대 제품은 불행히도 2.5시간에 불과하다. 이 정도 구동 시간이면 휴대기기 용도로 실격이다. 노트북에 비해 휴대의 편리성을 강조한 것이 UMPC인데, 이 기기 사용을 위해 가방에 항상 전원코드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면 그건 마케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트너측이 UMPC의 성장 동력으로 ▲400달러 이하 저렴한 가격과 ▲휴대폰 노트북과 다른 새로운 브라우저 개발 ▲UMPC에 적합한 콘텐츠 등을 제시하면서, 덧붙여 ▲8시간 배터리 구동 시간이라고 강조한 부분을 제조업체들은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